

洪 東 洙 <한국통신 정보통신사업본부 사업계획국장>

# S/W유통센터 설립 어떻게 되나?



국내 업체에서

생산된 각종 소프트웨어가

한곳에 진열, 판매되는 S/W유통센터가

연내 용산전자상가에 설치된다.

한국통신은 지난 연말 이 S/W유통센터를

컴퓨터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용산전자상가 내에 설립키로하고

나진산업(대표 **李문희**)측과 계약을 체결,

나진빌딩 지하 1층에 이미 공간을 확보해 두고 있다.

이번호 정보화사회초대석에는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발전시킨다는

목표아래 유통센터 설립의 지휘봉을 잡은

한국통신 정보통신사업본부 사업계획국

洪東洙 국장을 초대한다.

— 당초 한국통신에서 밝힌 것보다 유통센터의 설립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유는?

▼올 상반기까지는 오픈할 계획

이었으나 총 22억원을 들여 임대할 나진빌딩 지하 1층의 건물 용도가 창고용이라 설립이 다소 지연돼 왔습니다. 이제 건물용

도변경 문제도 마무리되고 해서 오는 12월에는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 유통센터 내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갖춰지게 됩니까?

▼구입해둔 나진빌딩 지하 1층의 규모가 총 739평에 이르고, 전용면적만도 464평이 됩니다. 저희는 이곳에 전시판매장(1백60평)과 세미나실(1백50평), 컴퓨터교육실(30평),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관한 상품정보를 단말기를 통해 검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검색코너와 한국통신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통신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Korea Telecom코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한국통신의 잠재력으로 볼 때 유통센터의 설립이 관련기업이나 일반인에게 할 것 없이 많은 관심을 끌 수 밖에 없는데, 설립동기는 무엇입니까?

▼2천년대 고도정보화사회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기술수준의 미흡함 뿐만 아니라 특히 시장기능의 미비로 적정가격이 형성되지 못하고 복제가 관행화되는 등 유통체계에 커다란 문제점을 지녀왔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한국통신은 소프트웨어 유통구조를 개선하

고, 사업자가 자생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의 지원·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본 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구체적으로 국내 사업자나 이용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소프트웨어공급자 측면에서 보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보다 손쉽게 판매할 수 있어 비용절감은 물론 시장기능에 의한 적정거래가격의 형성으로 개발의 욕도 고취될 것입니다. 또 유통센터를 통한 제품판매가 신뢰성을 높여주는 등 보이지 않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수요자 입장에서 한꺼번에 각종 소프트웨어를 비교, 시연해 볼 수 있어 구매선택이 용이하고, 한국통신의 품질보증으로 신뢰성있는 제품구입은 물론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해 컴퓨터 이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유통센터가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나 구매자들 모두에게 공동의 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지만 민간기업에서 볼 때 단순히 새로운 사업영역으로의 진출로 비춰질 소지가 없지 않은 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공익성 확보를 위한 계획은?

▼컴퓨터통신의 선진화를 위해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발전



한국통신의 S/W유통센터가 들어설 나진상가. 한국통신은 이곳 지하 1층 739평규모에 국내 생산 소프트웨어만을 취급하게 될 유통센터를 설치, 오는 12월 오픈할 계획이다.

이 시급한 만큼 유통센터의 설립은 한국통신의 위상이나 시기적으로 볼 때 매우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간업계의 위축이나 영역침범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교보문고 설립 후 오히려 서적계의 발전이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보문고 설립 당시만 하더라도 대다수 영세서점들이 도산할 것이라고 반말이 심했거든요.

현재 국내 소프트웨어시장은 영세 생산업체들이 제대로 판매망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고, 대형 유통업체들 역시 소프트웨어, 특히 국내 생산 소프트웨어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곳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순수 공익차원에서 국내 생산 소프트웨어만을 전문으로 취급, 이 분야 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한국통신의 기본방침인 만큼 업계가 동반자

적인 입장에서 함께 성장·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명실상부한 소프트웨어 유통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는 다수사업자들의 참여와 양질의 소프트웨어 확보가 관건이 될 텐데, 운영방침과 향후 계획은?

▼이번에 설립될 S/W유통센터가 소프트웨어 상품의 종합시장 성격을 지니게 하기 위해 정부 관련부처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하드웨어업체·소프트웨어 관련 협회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한편 국내 유통 소프트웨어의 현황을 파악해 다수사업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생각입니다.

또 소프트웨어 검증을 통해 품질별로 분류해 가격을 결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국제경쟁력까지도 확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